청문회 벼르는 민주 "제2 천성관 나올 것"

정운찬 정조준… 분야별 '저격수' 배정
자질 의심 장관후보자들도 집중 포화

민주당이 내주부터 시작되는 국무총리 및 장관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국면전환을 노리고 있어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여권이 정운찬 총리 후보자 등 개각 카드와 서민 행보를 앞세워 강력하게 국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맞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야당의 존재감을 확인시키고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8일 민주당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운찬 총리 후보자와 이번에 개각 대상이 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또한, 전반적인 당내 시스템을 인사청문회에 집중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총 동원하며 정보 수집에 나서는 등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를 인사청문회를 통해 낙마시키는 등 '야당의 힘'을 과시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집중적인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청문위원 선정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으며 정 총리 후보자의 경제정책과 교육관, 도덕성 등 분야별로 '저격수'를 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세종시 문제의 경우 정 후보자의 고향인 충청도 출신 인사 1명을 반드시 포함시켜 맞불을 놓기로 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명박 정권과의 분리 대응을 통해 여권의 내분과 분열을 유도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동산, 공기업 혁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감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등 그동안 정부 정책에 대한 정 후보자의 부정적 발언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처럼 민주당이 '정운찬 때리기'에 나서는 것은 중도실용의 상징인 정 총리가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중도서민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 총리 내각이 순조롭게 출범한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 민심이 여권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위기감도 깔려 있다.

한편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집중포화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백희영 여성장관 후보자 등 전문성과 자질 면에서 결함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인사를 집중 타깃으로 정하는 등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키로 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국회 주변에는 정 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루머가 난무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번 인사청문회는 매우 민주당에게 중대한 기로"라며 "이번 인사청문회 결과는 당장 10월 재보궐선거는 물론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당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박희태 양산 재선거 공천 장담
'친박 공천' 괴문서 한나라 시끌

한나라당 대표직을 사퇴한 박희태 전 대표가 8일 양산 재선거에 공식 출사표를 던졌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양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출마기자회견을 갖고 "집권여당 대표였던 정치경륜을 모두 쏟아부어 양산을 부산, 울산에 버금가게 비약적이고 화끈하게 발전시키겠다"며 "양산발전을 위한 예산편성에는 5선 국회의원과 집권여당 대표의 역량과 현 정권창출을 위해 보여줬던 추진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천가능성에 대해 "자신 없으면 집권여당 대표직을 사퇴했겠느냐"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날 10월 재보선 한나라당 공천자에 대한 문서가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한나라당이 발칵 뒤집혔다.

'10월 재보선 공천전략 검토안'이라는 제목의 이 '대외비' 보고서는 "강릉은 친박계인 심재엽, 양산에는 박희태, 안산 상록을은 민주당 공천 후 결정이 바람직"이라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인 장광근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설 수준의 얘기를 담은 괴문서를 본적도, 들은 적도 없다"며 "한마디로 정신나간 발상이며 기가 찰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천 이해 당사자 주변에서 희망 섞인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당사자는 물론 당에도 도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 라운지

朴시장 "다른 일 못하더라도 플루 잡아라"

○…박광태 광주시장은 8일 간부회의에서 신종 플루 대책과 관련,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다른 업무를 중단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사명감을 갖고 일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추석명절을 앞두고 사업장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소외계층과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이 소외받지 않도록 복지관련 업무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구의회 의정비 동결

○…광주 서구의회는 8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구의원들은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월정수당 1천738만원,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 등 3천58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박순애 운영위원장은 "서구의회 의정비는 행안부 제시 금액보다도 400여만원이 적다"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의정비 인상이 필요하지만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고통 분담과 경제살리기에 동참하고자 동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일 음악회' 개최 합의

○…민주당 김영진 의원(광주 서을)은 2박3일의 일본 방문을 마치고 8일 귀국했다.

김 의원은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오사카에서 지난달 총선에서 7선 고지에 오른 한일기독의원연맹의 일본 측 회장인 민주당 도이 류이찌(土肥 隆一) 중의원 의원의 당선 축하모임에 참석했다. 그는 또 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과 오는 11월 서울에서 '한-일 평화 음악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김재균의원 감사패 받아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 8일 오후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정책토론회 사전설명회'에서 '광주시 북구 예산참여시민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1998년 7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북구청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 재정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공으로 감사패를 받았다.

/윤영기기자 penfoot@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민주당, 모든 것을 바꿔야 산다"

김효석 의원 "반기업적·부자 적대적 이미지 쇄신해야"

내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표직 도전 의사를 밝힌 김효석 의원(담양·곡성·구례, 사진)이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는 '마누라와 자식을 빼 놓고 다 바꾸겠다'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국민 속으로 파고들어야 한다"며 당내의 개혁과 혁신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8일 기자와 만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도 민주당은 아직까지 국민에게 새로운 모습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민주당은 발상의 전환을 기반으로 과감한 내부 혁신을 통해 과거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은 그동안 민주화와 인권 등에 노력해온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줬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두 번의 민주당 정권 창출과 지난 16·17대 총선에서 민주화 운동 세대의 원내 진출 등으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은 기존의 민주화와 인권의 가치를 넘어서는 새로운 미래 비전을 요구했다"며 "민주당은 이제 과거에 갇혀있는 정당, 구태의연한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감한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법론과 관련, 김 의원은 "우선 민주당은 진보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되 반(反)기업적이고 부자에게 적대적이라는 과거 이미지 쇄신을 통해 민심의 중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존의 노선과 정책 등에 대한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진영 통합 이슈와 관련, "통합도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정당이나 세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통합에 얽매이기 보다는 통합의 정신으로 무소속 정동영 의원이나 일부 친노 세력의 영입에 나서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 김 의원은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과 정 총리 후보자와의 '갈라치기'에 방점을 둬야 한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정 총리 후보자로부터 부자감세 정책 수정 등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새로운 정치적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며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통한 내부 혁신과 개혁은 민주당의 미래를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MB, 방송장악 음모 중단하라"
민주당 조영택 의원

민주당 조영택 의원(광주 서갑·사진)은 8일 "이명박 정부는 방송 장악 음모를 당장 그만 두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7일 KBS 이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아무도 방송을 장악할 수는 없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언론쇼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권 출범 1년6개월간 시행한 방송 관련 사건들을 보면 방송 장악 행태가 여실히 입증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 예로 KBS 정연주 사장·신태섭 이사의 강제 해임, YTN 사장의 낙하산 임명,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친정부 인사 교체 등을 들었다. 심지어 민영방송인 OBS에까지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의원은 "친정부적 언론환경을 조성해 장기집권 토대를 구축하고자 '언론악법 프로젝트'를 불법적으로 직권상정, 강행처리 했다"고 비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